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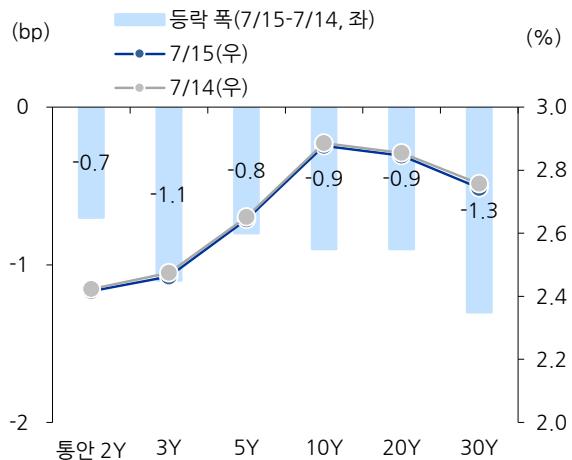
Eugene's FIICC Update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		(단위: %, bp, 틱)			
		7/1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63%	-1.1	-1.4	-13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7%	-0.9	3.0	2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41.4	41.2	37.0	25.9
	3년 국채 선물(LKB)	107.18	4.0	4.0	53.0
	10년 국채선물(LKB)	117.70	5.0	-30.0	78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943%	4.2	5.0	-29.7
	미국채 10년물	4.485%	5.0	8.2	-8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54.2	53.4	50.9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06%	-2.2	1.8	34.3
	호주국채 10년물	4.378%	0.6	11.3	1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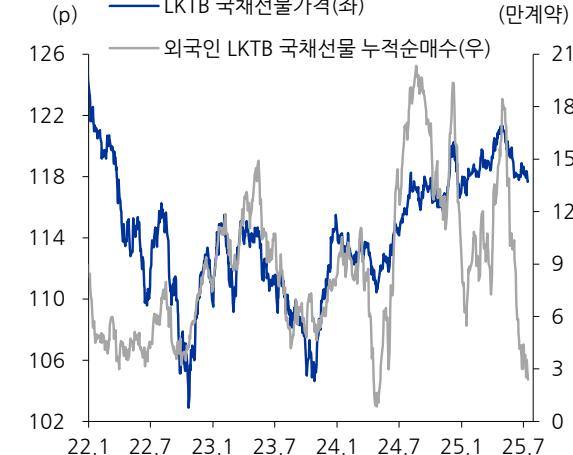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일본 국채 초장기 금리에 연동, 장 초반 약세 시현. 참의원 선거 앞두고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 선전 가능성이 부각된 여파. 미 CPI 발표 앞둔 경계감도 지속.
- 다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, 강세 전환. 전일 약세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.
- 한편 대통령, 내년에도 경제 부양 위해 정부 정책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강조. 다만 재정 여건이 마땅치 않은 점에 부담을 표출. 각 부처에 효율적 예상 편성을 준비할 것을 지시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장 초반 미국채 전구간 강세.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모두 예상을 웃돌지 않은 안도감이 확산. 다만 세부 내용에 관세에 따른 가격 전가가 확인되자 금세 약세 전환.
- 가정용 가구 및 용품, 가전제품 등 수입에 민감한 일부 품목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에 시장의 이목이 쏠림.
- 10년물 BDI는 한때 2월 하순 이후 최대치까지 경신. 30년 금리는 장 후반까지 5%를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감.
- 보스턴 연은 총재, 당장 금리 인하보다 적극적 인내 필요함을 주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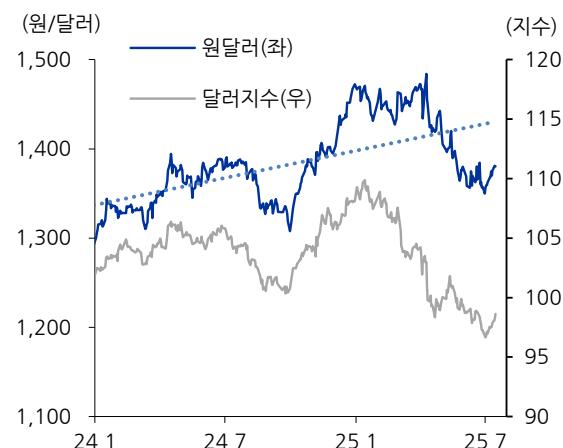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		(단위: %, \$)			
		7/1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80.20	-0.1%	0.9%	-6.3%
	달러지수	98.64	0.5%	1.2%	-9.0%
	달러/유로	1.160	-0.5%	-1.1%	12.0%
	위안/달러(역외)	7.18	0.2%	0.0%	-2.1%
	엔/달러	148.88	0.8%	1.6%	-5.2%
	달러/파운드	1.338	-0.3%	-1.5%	6.9%
상품	해알/달러	5.56	-0.6%	2.0%	-10.1%
	WTI 근월물(\$)	66.52	-0.7%	-2.6%	-7.3%
	금 현물(\$)	3,324.14	-0.6%	0.7%	26.7%
	구리 3개월물(\$)	9,657.50	0.4%	-1.4%	10.1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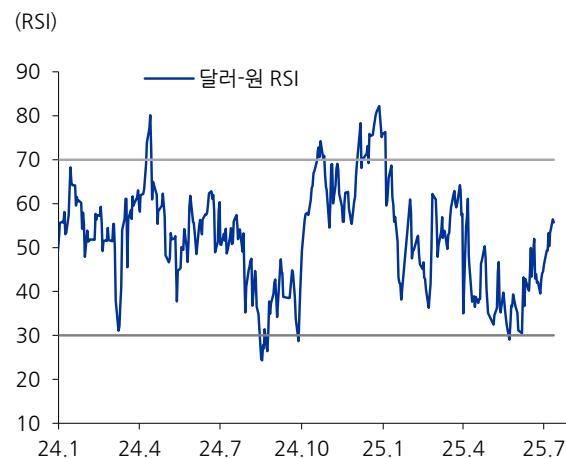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1.00원 하락한 1,380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88.20원에 마감.
- 간밤 달러는 미국 관세 위협이 이어지면서 상승했고, 달러-원은 전거래일 대비 +1.30원 상승 출발.
- 오전 중 1,386원 선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이후 네고 물량 유입,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등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CPI 반등 속 강세.
- 6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7% (Y), +2.9% (Y) 상승. Core CPI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, 상품 부문에서 관세 발 인플레 압력이 확인되면서 달러는 강세 전환.
- 상품 인플레가 뚜렷하나, 이것이 과연 연준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인지는 확인해볼 필요. 최근 시장의 인하 기대가 너무 확대되었을 뿐 연준은 인플레 확대에도 금리 인하를 예상함. 단기적으로는 9월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이어질 전망. 달러-원은 1,400 원까지는 단기 상방이 열릴 가능성.
-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힌.